

경기도, 수원시 등 '비정규직 동아리' 활성화...올해 2억4천만원 투자

✎ 박노훈 기자 | Ⓜ 승인 2022.04.05 09:52

- '2022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 수행사 4곳 최종 선정
- 남동권(수원시 등 10개 시군), 남서권(11개 시), 북동권(7개 시), 북서권(3개 시군) 권역별 한 곳씩 선정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화 향유와 자발적 노동자 네트워크 활동 기대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4개 기관과 함께 '2022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여가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 간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남동권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남서권역 '안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북동권역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북서권역 '파주노동희망센터' 등 4곳을 권역별 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

'남동권'은 수원·성남·용인·안성·이천·여주·광주·하남·양평·평택 10개 시군, '남서권'은 김포·부천·광명·시흥·안산·과천·안양·군포·의왕·화성·오산 11개 시군, '북동권'은 가평·포천·구리·남양주·동두천·연천·양주 7개 시군, '북서권'은 고양·파주·의정부 3개 시군이 해당한다.

각 사업 수행자는 투명·공정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올 한해 지원받을 비정규직 동아리를 선정, 직종·분야별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돕게 된다.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수행자를 통해 동아리 운영과 문화행사 개최비 등을 지원받고,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동아리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합동공연, 발표회, 전시회 등 성과 공유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2억4,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남동권, 남서권이 각각 7,000만 원, 북동권, 북서권이 각각 5,000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충전과 휴식,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노동자 간 연대 의식 강화를 도모해 노동인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움에도 4개 권역에서 총 85개의 비정규직 노동자동아리를 발굴 및 지원했으며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동아리 합동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그간 열악한 노동환경 조건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문화 활동 향유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사업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의 주축인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해당 권역별로 남동권역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031-548-1888), 남서권역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031-487-4870), 북동권역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59-4847), 북서권역은 파주노동희망센터(031-949-0248)로 문의하면 된다.



박노훈 기자 nhp@suwonilbo.kr

